

# 시대의 변화가 불러온 주체성의 상실

20102 김승찬

현대 인류는 21세기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자유, 평등의 권리를 보장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즉, ‘주체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스스로 하루 일과를 짜서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은 ‘주체적인 인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하물며 북한에서도 경제 자립, 국방 자주 등을 외치는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주체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만큼 본격적인 답에 앞서 ‘주체성’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 인류가 이토록 자유, 평등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에는 기술 등의 발달에 따른 문명의 발전에 그 기반이 있다. 과거 자급자족 시대에서는 자신의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급급했지, 다른 욕구는 추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양한 자신의 욕구를 ‘돈’을 이용하여 충족시킬 수 있다. 즉,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주체성이란, ‘돈’을 이용하는 행위, 다시 말해 ‘소비’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여러 욕구(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고 싶은 모든 행위를 의미함.)를 충족시켜 자신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질문을 해보고자 한다. 현대 인류는 ‘주체적인 인간’인가?

나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거 자급자족 생활시대에서 중세, 근대 시대로 변화하면서 보다 많은 인류가 ‘주체성’을 확보할 수는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절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 인류는 결코 ‘주체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현대 시대 내에서 점차 기술 등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는 더욱 ‘비(非)주체적인 인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아 이러니하게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신분의 철폐와 평등권의 확산’에 있다. 베블런은 유한계급론에서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재력이다. 재력을 과시하는 방편인 동시에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편은 여가 활동과 과시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방편은 모두 그런 여가나 소비의 가능성을 지닌 중하류 계급에서도 유행하기에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과시 소비가 빈민 계급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경제 활동의 동력은 저축이나 거래가 아니라 과시, 모방 소비에서 볼 수 있듯이 거래가 아니라 이웃을 능가하려는 성향에서 온다고 주장했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중하류계급의 욕구가 ‘신분제’라는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겉으로 드러나기가 어려웠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런 제도적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모든 계급은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자기보다 나은 지배 계급의 생활양식을 본받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방, 과시 소비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베블런뿐만 아니라 소비의 사회의 저자, ‘장 보드리야르’ 또한 현대 사회의 소비에 대해 유사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소비의 주체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기호의 질서이다.<sup>1)</sup> 현대 사회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 우리 사회가 스스로를 말하는 방식, 그것이 소비다.<sup>2)</sup> 즉, 오늘날의 인류는 자신의 창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소비하는 상품 이미지나 상징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구성한다. 입고, 먹고, 여행하고 즐기는 것 등이 소비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것뿐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요소로 기능하는 것이다. 내가 소비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 나의 기호, 나의 사회적 위치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성을 아름다움, 매력 등 자연적 특성에 따른 가치를 지닌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광고에 의해 만들어진 모델을 그대로 따라한다거나 만들어진 코드에 순응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찾게 된다.

결국 현대 사회에 사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욕구’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에 따라 조작된 욕구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아닌 타자(他者)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주체성’의 정의를 떠올려보자. ‘소비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체성’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인류를 ‘주체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현대 인류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신의 ‘허구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허구적 정체성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시대의 발전, 진보, 변화가 인류에게 더 나은 ‘좋은’을 제공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곤 한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시대의 ‘변화’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왔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외형적인 것만을 보고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는 더욱 더 많은 비(非)주체적 인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글을 쓰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인류의 현 주소가 무한히 발전하는 희망의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가 불러온 주체성의 상실 시대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장 보드리야르의 말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소비는 유희적이며, 소비의 유희성이 자기인식의 비극성으로 서서히 대체되었다.”<sup>3)</sup>

---

1)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p.326 13-14줄

2)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p.328 15-16줄

3)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p.237 7-8줄